# “바다 사람이면 인명구조 나서는 건 당연”

‘바다의 의인’ 선정된 지의경 선장

## 흑산도 전복 선박서 선원 7명 구조
## 파고 높고 시야 확보 어려운 상황 속
## 해경의 신속한 구조활동 도와 ‘귀감’

정일호 지의경(57·오른쪽) 선장이 최근 해양경찰청 올해의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바다의 의인상’은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단체를 발굴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 선장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 2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35t급 어선이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바다는 파고가 높고 날이 저물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 선장은 신속히 자기 배를 몰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해경과 합동 구조를 벌였고,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을 구조했다.

지 선장은 “해경의 협조 연락을 받고 지체 없이 그물작업을 멈추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했다”며 “바다 사람이면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구조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진 목포해경 서장은 “넓은 바다에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힘을 보태준 지의경 선장의 선행은 사회적 큰 귀감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여수에서 침몰한 낚싯배에서 선원 9명을 구한 정병오 화성호 선장도 바다의 의인상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원일기’ 영원한 응삼이, 배우 박윤배 별세

MBC TV ‘전원일기’ 속 응삼이로 유명한 배우 박윤배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지난 19일 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박윤배는 폐섬유증을 앓다 전날 이른 오전 별세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하고 1969년 연극배우로 연기에 발을 내디딘 그는 1973년 MBC 문화방송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했다.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1980~2002)에서 배우로서의 인지도를 쌓아 올린 그는 ‘토지’(2004), ‘연개소문’(2005) 등의 대하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작은 ‘리틀맘 스캔들 2’(2008)이다.

영화 ‘여로’(1986)에서 조연 무라카미 역으로 스크린 데뷔를 마친 뒤에는 ‘지금은 양지’(1988), ‘울고 싶어라’(1989), ‘아라한 장풍대작전’(2004), ‘투 가이즈’(2004), ‘그 놈은 멋있었다’(2004),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2006), ‘사랑과 전쟁: 열두 번째 남자’(2008) 등에서 단역 및 조연으로 활약했다.

젊은 시절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원조 미남’으로도 알려진 그는 ‘농촌의 노총각’이라는 설정 외에는 별다른 특징도 비중도 없던 응삼이 역을 고향 강원도 철원에 사는 친구의 특징을 가져와 캐릭터를 재탄생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연기자였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간 영화 모임에서 영화의 매력에 빠져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배우가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원일기 속에서는 쌍봉 댁(이숙 분)과의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과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다. 자녀로는 1남 1녀가 있다.

/연합뉴스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서장

▲미래전략실장 이은수 ▲안전경영실장 윤영일 ▲기획관리실장 김동철 ▲자산재무처장 조영호 ▲기반사업처장 주영일 ▲보상사업단장 현상훈 ▲수자원관리처장 강원대 ▲그린에너지처장 서정호 ▲환경지질처장 노경환 ▲어촌수산처장 김태기 ▲총무인사처장 하태선 ▲농지은행처장 이정문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겸 미래농촌연구소장 윤석환 ▲농어촌연구원 글로벌시험연구소장 박경홍 ▲전남지역본부장 성도남 ▲충북지역본부장 김규전 ▲전북지역본부장 양정희 ▲경남지역본부장 강동화 ▲제주지역본부장 서상기 ▲금강사업단장 이강환 ▲토지개발사업단장 권진식 ▲안전진단본부장 김보업 ▲안전진단본부 안전진단실장 김현수

##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수해 65세대에 난방용품 꾸러미

최등호(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이 지난 18일 5개댐유역 수해피해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환)를 찾아 홍수 피해를 입은 65세대가 이용할 온열매트와 히터 등 ‘난방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 광주환경공단,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성금 기탁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339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오재대 에이엔티종합건설대표,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오재대 ㈜에이엔티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제105호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광장 |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br>10 걸어서 세계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3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br>50 생방송 오늘 아침 | 15 KBC 모닝와이드<br>35 모닝와이드 3부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br>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 50 찬란한 내 인생(재) | 35 불새 2020 |
| 9 |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45 KBS 뉴스 | | 30 930 MBC 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00 누가 뭐래도(재)<br>40 지구촌 뉴스 | 45 카이로스(재) | 10 SBS 뉴스<br>30 살맛 나는 오늘 |
| 11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30 팔도밥상 | 00 축구야구말구(재) | | 00 꾸러기 탐구생활<br>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12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 12 | 1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 00 12 MBC 뉴스<br>20 동해수호대<br>50 뽀뽀뽀 친구친구 | 00 SBS 12뉴스<br>25 민방 네트워크 뉴스<br>50 정재영의 이슈in(재) |
| 1 |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br>50 안녕 우리말<br>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br>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br>50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 2<br>30 KBS광주 열린마당(재) | | | 00 뉴스브리핑 |
| 3 | 35 미니다Q(재) | 00 KBS 뉴스타임<br>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br>30 TV 유치원 | 20 이 맛에 산다 | |
| 4 | 00 사사건건 |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br>50 다큐멘터리 3일(재) | 00 기분 좋은 날(재) |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
| 5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50 통합뉴스룸 ET | 00 5 MBC 뉴스<br>1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br>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 00 SBS 오뉴스<br>35 KBC저녁뉴스<br>50 남도애 가요 다시보기 |
| 6 | 00 6시 내고향 | 30 2TV 생생정보 | 15 오매! 전라도 | 50 닥터 365<br>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
| 7 | 00 뉴스7 광주전남<br>40 송년기획 우리말 겨루기 | 50 비밀의 남자 | 15 찬란한 내 인생<br>50 MBC 뉴스데스크 | 50 SBS 8 뉴스 |
| 8 | 30 누가 뭐래도 | 30 축구야구말구 | | 30 KBC 8 뉴스 |
| 9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 9 | 3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 20 카이로스 | 00 생활의 달인 |
| 10 | 00 가요무대<br>50 더 라이브 | 40 개는 훌륭하다 | 4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 00 펜트하우스 |
| 11 |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br>KBS 뉴스라인 | | 40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br>연극적 환상 |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
| 12 | 10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영화<br>써니 | 10 스포츠 하이라이트<br>35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다큐<br>스티븐 스필버그의 질문<br>우리는 왜 증오하는가 | | 35 나이트 라인 |

## EBS1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꼬마히어로 슈퍼잭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티시태시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09:30 명탐정 피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독도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한국에 산다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15:45 몬카트
16:15 올리 앤 문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마샤와 곰
17:30 출동! 슈퍼윙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19: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아시아 피싱로드-위대한 강, 메콩〉
21:30 한국기행
〈나의 전원일기 1부
내 꿈은 트로트 스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로망대로 살아볼까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7일 戊戌)

☎ 010-9790-8237

**子** 36년생 과신하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48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 하겠다. 60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72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84년생 치우친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색 국면에 이른다. 96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라. 행운의 숫자 : 04, 89

**丑** 37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49년생 생각하기 나름이다. 61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73년생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85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도다. 97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실은 양호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1, 87

**寅** 38년생 정반대의 판도로 비화 된다. 50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62년생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다보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74년생 맹점을 보인다면 흉의 원인이 되리라. 86년생 적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8년생 균형과 조화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0, 59

**卯** 39년생 지나 간 일은 의미가 없다. 51년생 전반적인 구도의 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득이 된다. 63년생 편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75년생 점점 세분화 되겠다. 87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99년생 예기치 못한 돌발적 현상으로 인해서 형세가 악화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7, 68

**辰** 40년생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52년생 의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64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사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76년생 유연하게 대응 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88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00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65

**巳** 41년생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53년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붉은 해가 치솟는다. 65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77년생 적절한 절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89년생 맹점을 보지 못한다면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01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5, 74

**午** 42년생 기본 방향에서 벗어난다면 곤란하다. 54년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66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임해도 된다. 78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90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02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03, 66

**未** 31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43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55년생 상대의 안색만 봐도 쉽게 인식하리라. 67년생 농부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 79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91년생 개척 정신을 발휘 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3

**申** 32년생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이 지대하도다. 44년생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 되어질 수 있다. 56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68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80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느니라. 92년생 추진력이 향상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58

**酉** 33년생 충동의 폐해는 대단할 수 있느니라. 45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57년생 곧 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9년생 단단히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81년생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동세이다. 93년생 실효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2, 69

**戌** 34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겠다. 4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58년생 예감이 잘 맞아 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70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82년생 꼭 다녀와야 할 곳이 생길 것이다. 94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4, 77

**亥** 35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47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손발이 척척 들어맞듯이 순조로움을 더하리라. 71년생 아무것이나 전혀 상관이 없으니 개의치 말라. 83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95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4